

보도시점 2025. 4. 29.(화) 17:00 배포 2025. 4. 29.(화) 15:00

「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」, 익산 수출기업 현장 애로해소 지원

- 美 관세부와 조치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지원 강화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(단장: 기획재정부 제1차관. 이하 ‘지원단’)은 4.29일(화) 익산시에서 화장품, 식품 등 6개 對美 수출기업과 함께 「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」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특히,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미국의 관세확대에 따른 애로를 통합 대응·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「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(본부장: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. 이하 ‘지원본부’)」로 개편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, 관세청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이하 ‘KOTRA’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‘중진공’), 무역협회, 해외인증지원단(산업통상자원부), 익산시청 등 관세대응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對美 수출기업들의 다양한 애로를 청취하였다.

참석기업들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자금 부담, 최신 관세율 등 정보 부족,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의 애로를 제기하였다. 이에 참석기관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(중진공) 등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,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*(KOTRA)과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(KOTRA) 등 다양한 수출다변화 지원제도**를 안내하였다. 아울러, 지난 4.18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(안)이 확정되는대로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지원이 각각 25.4조원, 0.2조원 증액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.

* 美 관세 부과 발표 내용 관련 자사제품 미국 수입 관세율 확인 가능(발표 3일내 업데이트)

** (수출24 대행서비스, KOTRA) 해외 시장조사 등 지원

(tradeKorea, 무역협회) 맞춤형 바이어 매칭 서비스 제공

김동준 부단장은 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”고 언급하면서, “앞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기업의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본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팀	책임자	팀 장 이명진 (02-6000-5785)
		담당자	사무관 임동욱 (ldu19@korea.kr)

